최근의 북한교육 동향분석

1 9 7 2. 10.

378

차 례

1. 학제개편의 주요내용 ——— 3

2. 그 필요성과 목적 ——— 6

3. 문 제 점 ——— 12

머 릿 말

남북적십자회담 진행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27년간의 분단상태가 빚어낸 두터운 장벽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교육제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의 장벽은 문제해결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북적 대표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성을 띠고있는데 대하여 분노와 실망마저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정치와 결부시켜 풀이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우리측 대표들의 순수한 인도적 입장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다.

「레닌」은 「모든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수업)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방향이다」고 강조하면서, 「생활에서 유리된, 또 정치에서 유리된 학교-그것은 허위이며 위선이다」고 하였다. 「레닌」의 이 말을 교육의 기본지침으로 삼는 공산주의적 교육을 받은 북적 대표들이고 보면 정치성이 가미되지 않는 발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치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지난 9월 1일부터 북한의 학제가 개편된 것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상태에 들어선 남북관계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공산집단의 외도

가 이번 학제개편에도 나타났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학제개편이 노리는 숨은 목적을 지실하고 이를 통일교육에 반영시켜 만단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적극화될 남북대결에서 차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1. 학제개편의 주요내용

금년 9월1일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수년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실시된 북한의 학제개편은 주로 중등교육과정에 국한되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지금까지 중학교 5년제를 4년으로 단축시키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2단계로 중등교육을 실시하던것을 6년제「고등중학교」의 1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내용면에서는 지금까지 인민학교(4년제)와 중학교까지의 9년제의무교육에서는 기초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까지의 10년제「고중의무교육」에서는「사상정치교육의 가일층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있는 점이 다르다.

종전에는 학회기를 만7세로 하였다면 금년부터는 만6세로 낮추었다.

작년까지는 학교전 교육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6년제「고등중학교」는「중등반」이 4년이고「고등반」이 2년으로서, 고등전문학교와 교육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중등반을 수료하고 고등반에 올라가지않고 그 학교들에 가게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종전의 중학교 과정을 1년 단축시켜 4년제로 한 동시에, 고등학교를 고등반으로 개칭하여 대학예비교의 성격에서 일반 중등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게한데 불과하다고 말

할수 있다.

북한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6년제 고등중학교의 주요특징은 「우선 중등교육을 완성하기전에 그 교육을 분화하는 이런 학교와는 달리,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는 중등교육의 전과정을 단일한 학교에 의해서 완성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빠짐없이 높은 단계에 까지의 중등교육을 누구나 다 같은 내용으로 중단없이 갖게하는 새형의 학교」라고 한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몇해동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이른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교육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내용도 이른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교육학의 원리」에 대한 김일성의 사상에 기초하여 편성된다고 한다.

내용편성에서 3대특징을 북한공산집단은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첫째 의무교육기간에 이른바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사상정치과목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

둘째, 자연기초과목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튼튼히 취득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편성하였다는 것

세째 의무교육기간에 한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편성한것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새로 개편된 북한의 학제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피교육자의 이용가치를 더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그 필요성과 목적

북한당국은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선전효과를 최대한 노리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졸업까지의 교육년한을 종전의 15~16년간을 1년간 단축시켜 14~15년으로 한데 불과하다.

1967년부터 소위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여건미비에도 불구하고 강행함으로써 막대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북한공산집단은 허덕여 왔으며, 학교관리비에 있어서 농촌지역에서는 협동농장의 「교육기금」에서 전액 노동자지구에서는 근로자들의 노임중 사회보장비」에서 반액 염출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년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재정상으로 큰 부담으로 여겨질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중학교 1년단축으로 남는 교육시설과 기존 2년제 고등학교 시설로 충당할수 있음으로 새로운 교육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대체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별다른 교육투자 없이도 학회를 1세 낮추고, 중학교를 1년 단축시킴으로써 북한의 16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켜 현대생산케제에 소요되는 일반지식수준을 높일수 있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부식시킬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북한의 학제개편은 현재까지의 교육비 지

출 범위내에서 교육효과를 더 많이 얻자는 것인데, 서둘러 그렇게 할 필요는 어디에 있었는가?

공산권의 다원화현상과 자유화경향은 강력한 저지책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리하여 김일성 유일사상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하므로써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막어보려고 북한공산집단은 오래전부터 시도해왔다.

그러나 공산권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경제사정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태는 자유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산권의 자유화 경향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의 영향을 직접받기에 이르렀다.

금년들어와서만도 북한을 단여간 비공산국가의 이러저러한 명목의 사절단들은 약 50개국에 이른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정당인, 경제인, 문화인, 체육선수, 기술자들이 올해 북한을 단여온 수만도 수백명에 이르고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공산집단은 지금까지의 폐쇄주의를 어느정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남북대화의 길이 열리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속으로는 달갑지않으나 국제여론과 대내적인 반발이 두터워서, 또한 이를 계기로 적화통일전술의 새로운 적용을 위하여 남북대결자세를 폭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도 모색하게된 것이다.

이러고 보니 북한공산집단은 소위 「사상정치교육」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과목에 돌리기 위하여 교과목 구성을 개편하고,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학제개편의 필요성은 고등학교에 대한 북한청소년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예기치않던 부작용이 공산독재체제에 반드시 미치게된다는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1967 년의 학제개편으로 신설된 2 년제 고등학교는 1960 년까지 존속되었던 3 년제 고급중학교와 그 목적과 교과내용이 본질적으로다르다.

기설된 고등학교는 일정시기의 대학예과와 같았던 2 년제 고등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과거의 고급중학교를 폐지한 이유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부가 약하였고, 유식 건달군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시의 교육문화상이었던 이일경은 말한적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고등학교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출신성분」이 좋고 소질이 있는 중학졸업생만을 입교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를 비롯한 웃대 어른들의 직업이 공산주의적 계급원칙에서 불신임을 받아야하는 가문출신은 아무리 향학열이 높고 똑똑해도 대학진학의 길이 막혀있으며, 본인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고등학교를 보기만 하여도 울화통이 터지기 마련이었다.

그와 같은 경향은 어떤 계기만 마련되면 폭발될수 있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당국은 누구나 갈수있는 고등학교의 이메지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모든 청년들이 대학진학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하여 불만을 완화하고 내막적으로는 정치적 신임도 중심의 전형방법을 계속하면 된다고 타산하고 있는듯 하다.

누구나 청운의 꿈을 안고 고등교육을 받고싶어하는것이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염원이며 북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출신성분」위주의 진학제도는 북한의 많은 청소년들로하여금 자기 전도에 대한 숙명적인 좌절감을 안고, 이왕 대학까지 못갈바에야 초등교육이나 받고 육체노동이나 하면서 바람부는대로 살아갈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북한공산집단이 60년대 후반기부터 대학범주속에 들어갈수 없는 소위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이러저러한 「대학」을 량산하여 「출신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을 받아드리고 있는것도 그와같은 욕구불만의 해소책의 하나이며, 삶의 의욕을 북돋아 보다 많은 이용가치를 짜내기 위함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리고 의무교육년한을 연장시키고 있는 이면에는 체념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을 억지로 부려먹기 알맞은 정도의 지식을 갖게하고, 동시에 어긋난 사상체계를 유물사관과 김일성 우상화 정신으로 바로잡아줌으로써 반체제세력으로 번져나가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학제개편으로 의무교육년한을 늘린것도 그와 같은 필요성을 크게 감안한 것으로 짐작된다.

끝으로 이번 학제개편의 필요성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유되고 있는듯 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1년간의 교육기간 단축은 그만치 교육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다.

북한공산집단은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길드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선전상의 효과도 노려서 학교교육의 규모를 너무 늘려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그러지 않아도 년간 세출총액의 약 절반가량을 군사비에 충당하고 있는 북한당국으로서는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투자를 하지않을수 없어 영국의 민간차관과 일본의 5개민간은행으로 부터 막대한 차관도입을 교섭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와 같은 재정형편에서 조금이라도 교육비지출을 감소시키려고 교육연한을 단축시키면서 10년제의무교육으로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경제적면에서 중등 기술자보다 고급 기술자의 수요가 대반반 부족한 조건하에서 고급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생이란 한정된 인원중에서 적격자를 고루기 보다도 전체 고급중학교 졸업생중에서 대학진학 가능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대학생의 질적구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서 북한공산집단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학제개편에 착수하고 있으나, 애써 그와같은 필요성을 감추고, 정치적 목적을 부각시키려고 혈안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북한공산집단은 상술한 필요성을 낳게한 제반요인들을 충족시키는 이외에 학제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듯 하다.

첫째 남북대결에서 북의 우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10년제의무교육 실시를 가능케할 목적으로 학제를 개편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효과보다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북한의 학제개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물사관에 기초한 이념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김일성유일사상을 보다 확고히 부식시키므로써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구실밑에 이념대결에서 승리함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세째 북한의 일반문화수준을 높이므로써 소위 「문화혁명」수행을 촉진시키자는데 있다.

네째 국제사회에서 저돌적인 침략자로서 인정되고 있는 처지를 완화하고, 교육을 비롯한 평화시책에 주력하고 있는듯 한 인상을 주어 유리한 대외활동조건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다섯째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의 불균형 상태를 어느 정도 시정하고, 북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불평등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시켜 불안요소를 감소시키려는데 있는듯 하다.

그러나 과연 그와같은 목적이 쉽게 달성될수 있을가는 의문시된다.

3. 문 제 점

북한공산집단의 새학제 개편작업은 크게 두 측면 즉 학교건설과 교육조건을 조성하는 면과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새 교과서를 편찬한 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고 보도하고있다.

학교건설과 교육조건 조성을 위해서는 이른바 「전인민적 운동」이라는 이름의 주민수탈에 의거하였고, 기술한바와 같이 크게 교실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등을 이용할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새로 편성하는 것도 명령일하 전격적으로 처리되는 북한이고 보면 수년에 걸쳐 실시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였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수년에 걸쳐 학제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물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상 문제도 있었겠으나, 5차당대회(70.11)이후 약2년동안의 기간에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

다분히 새 학제가 가져올수도 있는 부작용에 세심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꺼번에 학제개편을 하지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새 학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모두 대학진학자격을 소유하게 되는데, 종전처럼 정치적 신임도 위주의 전형방법으로 파생될 진학불가능자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무마할것인가?

둘째 사상 정치과목과 시간수를 대폭 늘리고, 자연기초과목교육을 강화하며,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면, 수업연한이 1년 단축된 상황하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워야 할 일반과목과 그 시간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이로 인한 편파적인 지능발전과 정서교육의 미비로 빚어질 살발한 인간상 시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세째 4년동안의 초등교육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7년동안의 중등교육에서 보충하였다면 1년 단축된 조건에서, 유치원생활을 1년간 의무화하므로써 보충될 수 있을것인가?

네째 중등실업교육은 고등중학교의 중등반을 수료하고 방계진학으로 받게될터인데, 중등교육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단일화한 조건하에서 중등반 교육으로 일단 끝맺는 사실상의 2단계 교육으로 되는바 그 연계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학제개편 전과 후의 피교육자들의 실력, 교육연한, 기타 차이나는 여러 문제들로 빚어질 현상들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겠는가?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학제개편으로 북한 젊은이들의 유일사상체계는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이 예견되며, 우리는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맺 는 말

북한의 이번 학제개편을 선전목적과 실질적인 교육효과의 두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연한을 가지고 우리보다 교육제도가 앞선것처럼 선전하려고 날뛸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도 전체적인 힘의 우위에서 오는 것처럼 선전공세를 펼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개성과 자아의식을 말살하는 공산주의적 교육을 더 오랜 기간 받을수록 교육의 본래의 의의는 감소된다는것을 지적하고 계몽과 해설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이념교육을 강화하는 목적인 남북대화에서 적화사상 침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무장에 박차를 가해야 될줄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투철하게 가지도록 교육교양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이념비판능력을 소유하도록 주력해야 될줄 생각한다.

중.고등학교의 반공도덕과목의 질적향상은 물론 일반용 유물사관비판서의 출판을 장려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대화있는 대결의 어려움을 국민들에 주지시켜 대응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1. 연구 개황

71년 상반년도에 추진할 연구 제목 「북괴의 사상교육 내용과 그 분석」은 북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관습을 이해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후 우리의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게하고저 한다.

따라서 종전에 연구된 사상교육을 위한 북괴의 교육정책을 연혁적으로 고찰한 토대위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괴가 최근에 더욱 강조하고 있는 소위 「유일사상」교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괴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기조 연설에서, 사상교육에 대한 새지침을 밝혔는바 이를 분석하고, 그 이후 그 새지침 실천을 위한 북괴의 대책들을 고찰하고저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북괴의 전쟁 준비와 관련하여 고창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였다.

동구 공산국가들과 소련에서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자유화 경향과 공산권의 다원화 현상이 북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것이 북괴의 사상교육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71년에 들어오면서 북괴가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소위 「백일 전투」라는 이름의 강제노동 수법과 「전민 무장화」정책에 따르는 군사훈련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떤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준비도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적 세뇌교육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북녘의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저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에 임하고 있다.

늦게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아직 집필단계에 들어서지 못하였으나, 4월이내에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분석완료하고 미비 자료의 수집을 끝낸후 5월부터 집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자료수집에 다소의 애로를 느끼고 있으나 본연구 추진에 큰 지장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2. 연구과정에 제기된 문제

북괴의 사상교육은 전교과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 교수내용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목별 연구자료도 부족하거니와 한두 사람의 전문지식으로는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분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밑에, 많은 연구인원들이 동원되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본 연구는 각 과목 공통으로 제기되는 공산주의적 세뇌교육의 일반적인 원칙과 그의 침투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일반론에 불과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반공 도의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과목이 북괴에는 없고, 「조선로동당투쟁사」, 「맑스·레닌주의 철학」, 「맑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 「세계노동운동사」등의 공통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상교육이외에, 모든 과목에 결부된 세뇌교육이 이루어진다.

북괴 사상교육 연구는 통일과정과 통일후 남·북 젊은 세대들의 치열한 이념투쟁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치하기 위한 사전준비도 중요 목적중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단순히 김일성이가 강조하고있는 세뇌교육 지침을 중점으로 다루는 연구범위를 초월하여, 보다 깊은 곳 즉 공산주의 이념을 분석 비판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격태세를 굳건히 하는 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줄 믿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와같은 부문에 손을 대고 연구기관이 없는 조건하에서 통일원은 마땅히 이부문을 개척해나가야 할줄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교육홍보실 주관하에 공산주의 이론비판 연구분과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할줄 생각한다. (예산관계로 독립된 연구기관을 창설하지 못한다면) 현단계로서는 통일에 대한 열의 앙양과 승공자세 확립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나,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북한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학」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를줄 생각하며, 그 모체가 교육분과에서 이루어져야 될줄 확신한다.

3. 앞으로 연구완성 계획

현재 북괴가 발행한 신문에서 발췌한 자료 43점과 사상교육을 다룬 서적 5권을 4월말까지 분석완료하며, 북괴교육기관지 최근호를 입수하여 자료발췌를 4월이내로 끝낼 예정으로 있다.

5월부터 집필에 착수하여 20일까지 완료하여, 추고를 한후 5월말까지, 늦어도 6월초순까지 국토 통일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북괴 사상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기초우에서 북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문제들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다.

본 연구논문은 대체로 150 내지 200매의 분량으로 완성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승공사상자세 확립과 통일후의 북한 젊은이들 선도책을 비롯하여 기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